



12면

고창 전통예술체험마을, 전통문화 체험 인기

# 전주매일

14면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음 4월 24일)

제398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성공 마지막 퍼즐 '공공기관 이전'

###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기업 투자안정적 뒷받침할  
산업진흥 기능 여전히 부족  
AI·로봇·수소 분야 관련  
공공기관 이전 뒤따라야

전북이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분야 관련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8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기업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연구개발(R&D)과 산업진흥 기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새만금이 국내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부지와 실증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지원 체계가 부족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단순한 지역 균형 배치 차원이 아닌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분야와 전북의 기존 산업기반을 연계한 3대 산업별 공공기관 매칭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이전을 통해 현대자동차 AI 데이터센터가 생산하는 방대한 연산능력과 데이터 자원을 전북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으로 연결하는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전북이 추진 중인 피지컬AI 및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이전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제조 및 부품산업과 공공 연구개발 역량이 결합돼 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연구원은 이를 통해 전북이 국가 대표 로봇·피지컬AI 테스트베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소산업 분야 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부안 수전해 생산기지 등 수소산업 전주기 기반시설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이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수전해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도시 등 다양한 수요처와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나아가 AI수소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시뮬·인증, 제도적 인프라를 기업 투자 현장과 결합해 산업현장 자체를 살아있는 실증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 유치가 전북 미래산업 발전의 출발점이라면, AI·로봇·수소 분야 공공기관 이전은 이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 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는 세 가지 거대한 파고를 헤쳐왔다"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점을 강조하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후 위기, 저출생, 지역 소멸 양극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 방안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찾고 있다"며 "올해를 세계 어떤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 "앞으로의 4년, 국가 대전환 나설 것"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K-이니셔티브 비전 설명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국정 운영 4대 목표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을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힘 없이 달려온 시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4년 동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 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는 세 가지 거대한 파고를 헤쳐왔다"며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점을 강조하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후 위기, 저출생, 지역 소멸 양극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 방안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찾고 있다"며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원인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AI를 산업과 일상으로 전면 도입한 국가 △자유국방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핵심 파트너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극도로 활용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의 4대 목표도 제시했다.

첫째,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이다. 그는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의 성과가 특정 기업과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건설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전시조전통제권 조기 회복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며 "균질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외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을 확대하

겠다"고 말했다. 셋째, 공정한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구현이다. 그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통하는 사회에서는 혁신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건설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복지·노동·의료·치안·재난 대응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좁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5,200만 주권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사 후에 기자회견의 다양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비교적 솔직 담백하게 밝혔으며,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더욱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01만호 기자

2026 완주 대둔산 아웃도어 페스티벌 완주 대둔산 잔디광장 일원

# DAEDUNSAN

2026. 6. 13. 토 - 6. 14. 일

절벽 풍경  
"오늘은 능선 아래서 잔다"

완주군 WANGJU-GUN

##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 시행... 도민 참여 SNS 이벤트

32개 조문 반영 10월 22일 시행... 도, 8~14일 시행일 맞기 퀴즈 진행  
정답자 100명 추첨해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특례 홍보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2일 시행되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 시행일 맞히기' SNS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도가 추진하는 핵심 특례와 미래 발전 비전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8일부터 1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공식 SNS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확인한 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 시행일을 맞

혀 이벤트 신청폼에 응모하면 된다. 도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에는 농생명·문화관광·미래첨단·민생특화 등 4대 핵심산업 육성과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 강화를 위한 7개 특례 분야가 담겨 있다.

특히 전국 최초 특례 12개와 국가 재정지원 특례 9개를 포함한 총 32개 조문이 반영돼,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육성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도민들이 전북특별법의 의미와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SNS 이벤트를 시작으로 법률 시행 전까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특례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도민 공감대 넓혀갈 계획이다. /01만호 기자